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1. 개념학습 3강 | 장마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소설 속 '나' 있잖아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던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등장인물이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 '장마'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비극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나'를 통해서 이념 갈등과 가족 공동체의 갈등을 보여준다고 하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장마'는 6·25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념 갈등이 가족 공동체 안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나'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을 통해 이념 갈등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지.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서술 방식에 대해 질문해도 될까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사용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물론이야. **간접 제시**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갈등과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이야.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싸움 장면이 대표적인 예시이지.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갈등과 인물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방식이고. '나'의 시선을 통해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지.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교재에 제시된 내용 외에 중요한 내용은 더 없을까요?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1. 개념학습 3강 | 장마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불쌍한 것…….”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서술자. 1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와 시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로, 이 소설은 ‘나’의 시선을 통해 이념의 갈등 및 가족 공동체 내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전장에서 싸우다 죽음.)한 외삼촌이 그렇고,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소수**(한 달이 좀 지나는 동안)간이나 줄곧 **울안**(울타리로 둘러싸인 집의 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현재 ‘나’의 처지이자, ‘나’가 자신을 불쌍한 처지라고 생각한 이유)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 통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산바라기로 오두마니 앉아 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 자식을 잃은 할머니를 불쌍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나’)

(중략)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이 소설의 주된 인물 간의 갈등임. 이 소설에 드러난 갈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념 대립의 양상이 가족 공동체 내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므로 소설에 드러난 갈등을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통이**(물건을 보에 싸서 꾸러 놓은 덩이)를 꾸러 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서울에 살던 ‘나’의 외할머니가 6·25전쟁으로 인해 ‘나’의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먼저 같이 지내자고 권한 사람은 ‘나’의 친할머니였음.) [**난리가 끝나는 날**(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번 없이 의중계 지내 왔었다.]([: ‘나’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사이가 좋았었음.)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할머니의 아들. 빨치산이 되어 산속 생활을 하게 됨.)이 **인민군**(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 시대적 배경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 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외할머니의 아들)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곁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내가 낮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 먹은 일**(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할머니는 ‘나’가 형사에게 양과자를 받고 삼촌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고 생각함.) 천하에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불화가 시작됨.)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 통지서**(외삼촌의 죽음을 알리는 내용)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쫓히는 험한 날씨**(장맛비가 쏟아지는 날. 암울한 분위기)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1. 개념학습 3강 | 장마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불쌍한 것…….”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 보았다. 방금 그 종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그렇고,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소수간이나 줄곧 울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 통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산바라기로 오두마니 앉아 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금 세 지워지고 말았다.

(중략)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통이를 꾸러 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번 없이 의좋게 지내 왔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 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곁에 두드러진 변

화는 없었다.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열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내가 낮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에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바웃새에 숨은 뿔갱이 마자 다 썰어 가그라! 나무 틈새기에 었던 뿔갱이 솟덩이같이 싹싹 꼬실러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옹지! 하늘님 고오맙습니다!”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져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저 늙다리 예펜네가 뒤질라고 환장을 혀다?”

그러자 안방 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악의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어그가 시방 누 집인 종 알고저 지랄이라, 지랄이?”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보자 보자 허니께 참말로 눈꼴시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웬수로 갚는다드니 그 말이 거그를 두고

하는 말이고만. 올 디 갈 디 없는 신세 하도 불쌍혀서 들어앉혀 농게로 인자는 아도 으르도 몰라보고 갖인 야냥개를 다 부리네그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송악시런 맘을 먹으며는 댁대로 거그한티 날베락이 내리는 뱀어.”

당장 메어꽃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술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훈계조가 되었다.

“아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성부른가? 어림 반푼도 없는 소리 빛감도 말어. 인명은 재천이랬다고, 다아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여. 그리고 자석이 부모보담 먼저 가는 것은 부모 죄여. 부모들이 전생애 죄가 많았기 땀시 자석놈을 앞시워 놓고는 뒤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다아 감당허게 맹근 게여. 애시당초 자기 팔자소관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허고 마잘 것이 없어. 낫살이 저만치 예순 줄에 앓어 있음시나 조께 부끄러운 종도 알아야지.”

“그러. 나는 전생애 죄가 많아서 아덜놈 먼침 보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복을 휘어지게 짙어지고 나와서 아덜 농사를 그 따우로 지었다냐?”

하고 외할머니도 앙칼지게 쓰아붙였다.

“저놈으 예펜네 말허는 것 좀 보소이. 참말로 죽을라고 환장했능개비. 내 아덜이 왜 어디가 어찌간디 그러?”

“생각혀 보면알 것이구먼.”

“저 죽은 댁이 지사 지내 줄 놈 한나 없응게 남덜도 모다 그런 종 아는가 분디…….”

“고만덜 혀 뒤요!”

“우리 순철이는 끈덕도 없다, 끈덕도 없어. 무신일이 생겨야만 쇠이 시연혈 티지만 순철이 가는 쏘내기 새도 요리조리 뚫고 땡길 아여.”

“어따 구만덜 허라니께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

- 윤희길, 「장마」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설의 배경 묘사를 통해 소설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이중적 시점을 사용함으로써 사건을 다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언젠가 끝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등장인물에 대한 비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결한 현재형 문장으로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④ 감각적 묘사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3. 윗글의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서
- ② 비극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 ③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내면 심리까지 자세히 서술하기 위해서
- ④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에 맞춤으로써 그의 내면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 ⑤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과 대비되는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4. 윗글에 드러나는 시대 상황이 드러나는 것은?

- ① 앞뒤로 덤비는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말긴 신세임을,
- ②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 육첩방은 남의 나라. //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 한줄 시를 적어볼까.
- ③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④ 저리 국경 강안을 경비하는 외투 쓴 검은 순사가

/ 왔다- 갔다- 오르명 내리명 분주히 하는데 / 발각도 안 되고 무사히 건넌을까?

- ⑤ 벽, 벽...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려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으면 아방(我方)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5. 윗글에 드러난 시대 상황과 같은 것은?

- ① 나와 / 하늘과 / 하늘 아래 푸른 산뿐이로다. / 꽃 한 송이 피어낼 지구도 없고 / 새 한 마리 울어줄 지구도 없고 / 노루새끼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다.
- ② '오매 단풍 들 것네' / 장광에 골불은 감납 날러 오아 /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 '오매 단풍 들 것네'
- ③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 삼천리 화려 강산의 /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 자기들끼리 깰길대면서
- ④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丹青), 풍경 소리 날러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등주리를 마구 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玉座) 위엔 여의주(如意珠) 희롱하는 쌍룡(雙龍) 대신에 두 마리 봉황(鳳凰)새를 틀어올렸다.
- ⑤ 일찍이 한 하늘 아래 목숨 받아 / 움직이던 생령(生靈)들이 이제 / 싸늘한 가을바람에 오히려 / 간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다부원

6.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자 한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이 작품에 대해 토론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둘째, 우리 문학이 지니고 있는 보편성을 어떻게 찾아내 드러낼 것인가이다. 두 가지 문제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①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사투리 특유의 어조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 ②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양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③ 이 작품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 내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 ④ 이 작품에 제시된 속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 ⑤ 이 작품의 배경인 6·25 당시 농촌의 분위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7~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불쌍한 것…….”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그렇고, 사실은 나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소수간이나 줄곧 울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 통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산바라기로 오두마니 앉아 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금세 지워지고 말았다.

(중략)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통이를 꾸러 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번 없이

의 좋게 지내 왔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 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곁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내가 낯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에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바닷새에 숨은 뿔갱이 마자 다 썰어 가그라! 나무 틈새기에 얽힌 뿔갱이 솟덩이같이 싹싹 꼬실러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옳지! 하늘님 고오맙습니다!”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져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저 늑다리 예펜네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다?”

그러자 안방 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악의를 가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그가 시방 누 집인 종 알고저 지랄이라, 지랄이?”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보자 보자 허니께 참말로 눈꼴시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이 거그를 두고 하는 말이고만. 올 디 갈 디 없는 신세 하도 불쌍혀

서 들어앉혀 농개로 인자는 아도 으런도 몰라보고 갖인 야냥개를 다 부리네그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송악시런 맘을 먹으며는 댕대로 거그한티 날베락이 내리는 뱌여.”

당장 메어꽃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술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훈계조가 되었다.

“아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성부른가? 어림 반푼도 없는 소리 빛감도 말어. 인명은 재천이랬다고, 다아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여. 그러고 자석이 부모모담 먼저 가는 것은 부모 죄여. 부모들이 전생애 죄가 많았기 땀시 자석놈을 앞시워 놓고는 뒤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다아 감당하게 맹근 게여. 애시당초 자기 팔자소관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마잘 것이 없어. 낫살이 저만치 예순 줄에 앉아 있음시나 조께 부끄런 종도 알아야지.”

“그러. 나는 전생애 죄가 많아서 아덜놈 먼저 보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복을 휘어지게 짚어지고 나와서 아덜 농사를 그 따우로 지었다냐?”

하고 외할머니도 양갈지게 쓰아붙였다.

“저놈으 예펜네 말허는 것 좀 보소이. 참말로 죽을라고 환장헿능개비. 내 아덜이 왜 어디가 어찌간디 그러?”

“생각혀 보면알 것이구먼.”

“저 죽은 댐이 지사 지내 줄 놈 한나 없응게 남덜도 모다 그런 종 아는가 분디…….”

“고만덜 혀 뒤요!”

“우리 순철이는 끈덕도 없다, 끈덕도 없어. 무신일이 생겨야만 식이 시연혈 티지만 순철이 가는 쏘내기 새도 요리조리 뚫고 땡길 아여.”

“어따 구만덜 허라니께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

- 윤흥길, 「장마」

7.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 등장인물이 자신의 체험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로 작품 안의 한 인물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작품의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④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하나의 사건을 각각 서술하고 있다.
- ⑤ 작품의 주인공이 자신이 겪은 사건과 사건에 대해 느낀 바를 서술하고 있다.

8.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다음 중 제목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쉽게 끝나지 않는 기상 현상
- ② 개인의 낯지 않는 우울감
- ③ 6·25전쟁으로 인한 한 가족의 불행
- ④ 지속되는 이념의 대립
- ⑤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

9. 제시된 줄거리를 참고하여 이 소설의 결말 부분인 <보기>를 보았을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줄거리>

6·25전쟁으로 서울에 살던 외할머니는 시집간 딸네 집으로 피난을 내려와 친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는 국군 소위인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고 그 충격으로 빨치산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이를 빨치산으로 산속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향한 악담이라고 생각하여 노발대발하고, 두 할머니는 서로 반목하게 된다. 빨치산 소탕 작전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지만 친할머니만은 점쟁이의 말대로 아들의 생환을 굳게 믿으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아들이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날, 아들 대신 상처 입은 구렁이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외할머니는 졸도한 할머니를 대신해 정성껏 구렁이를 달래 보낸다. 깨어난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얼마 후 숨을 거둔다.

<보기>

할머니의 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짝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으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미였다.

- ① 한 줄 띄어져 있어 여운을 남기는군.
- ② 작품의 제목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
- ③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해.
- ④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싹트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어.
- ⑤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질 만큼 힘든 나날이었음을 암시해.

10.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삼촌이 입대하기 전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 ② ㉠를 통해 할머니가 운명론적 사고관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③ 외할머니가 마루에서 소리치던 날 이전에는 두 할머니가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냈다.
- ④ 외할머니의 ‘빨갱이에 대한 저주’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었다.
- ⑤ 두 인물은 갈등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민족적 비극의 희생자이다.

11. <보기1>은 윗글의 서술자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2>를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윤홍길의 「장마」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나이 어린 서술자를 통하여 사건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성장한 ‘나’의 기억 속 과거 장면에 대한 친절한 해설이다.

<보기2>

윗글에 제시된 내용 외
 어른의 시점이 드러나는 부분
 -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 였다.’
 -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항상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 ① 민감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나이 어린 서술자를 통하여 주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 ② 성장한 ‘나’의 시각은 미성숙한 서술자의 시선을 보완하게 된다.
- ③ 어른들의 갈등을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전달함으로써 이념과 인물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④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면서 무거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 ⑤ 입체적인 서술로 작중 사건과 서술 사이에 간격이 생기며 독자들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12. 윗글의 제목인 ‘장마’의 의미와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마가 지속되는 것을 통해서 음울한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이념의 차이로 인한 대립이 가져온 갈등과 고통의 세월을 상징한다.
- ③ 긴 장마도 언젠가는 끝이 나듯이, 이념의 대립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도 언젠가는 치유될 것을

암시한다.

- ④ 한국전쟁의 아픔을 상징한다.
- ⑤ 이념 대립이 물고 온, 전쟁에 출전한 개인의 불행을 의미한다.

13. 윗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일제 강점기의 비극을 가족 내의 갈등으로 다루고 있다.
- ② 전라북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토속성과 현실성을 강화한다.
- ③ 서술자의 성장과 성장 과정의 의의를 다루고 있다.
- ④ 인물들의 심리를 마치 꿰뚫어보듯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⑤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온 노인들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윗글은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상황 및 사건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뿐, 등장인물에 대한 비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배경 묘사를 통해 전쟁의 고통과 가족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작품 전체에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어린아이의 시점과 어른이 된 시점이 함께 제시되는 이중적 시점을 활용하여 사건을 다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윗글은 ‘어따 구만덜 허라니께요!’, ‘고만덜 혀 뒤요!’ 등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 분위기를 내고 있다.
- ④ 윗글은 ‘장마’라는 언젠가 끝이 나는 소재를 활용하여 언젠가 전쟁의 고통과 이념 대립이 끝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 정답 ⑤

윗글은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들의 행동을 전달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① 윗글은 과거형 문장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윗글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 ③ 윗글은 빈번한 장면 전환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윗글은 어느 시골 마을의 한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시대적 비극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감각적 묘사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3. 정답 ②

윗글은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두 할머니의 갈등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했다.

- ① 윗글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 이중적 시점을 활용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자세히 서술하기 위

해선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에 맞추어 그의 내면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윗글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과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4. 정답 ⑤

윗글은 ‘인민군’, ‘빨치산’ 등을 통해 6·25전쟁이라는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 ⑤ 또한 ‘벽, 벽’, ‘슬픈 철조망 속’을 통해 6·25전쟁 후 분단이 된 상황을 알 수 있다.

- ① ‘앞뒤로 덤비는 승냥이’는 일제를 의미하고, 이러한 일제와 타협과 굴종을 요구하는 현실이 드러난다.
- ② ‘육첩방은 남의 나라’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대가 드러난다.
- ③ 특별한 시대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 ④ ‘외투 쓴 검은 순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대가 드러난다.

5. 정답 ⑤

윗글은 ‘국군’, ‘인민군’ 등을 통해 6·25전쟁이라는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 ⑤는 한 하늘 아래 목숨 받았다는 것은 한 조국 아래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 생명들이 이제 싸늘한 가을바람에 간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나의 조국 아래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전쟁의 상황(6·25전쟁)임을 알 수 있다.

- ① 꽃 한 송이 피어낼 지구도, 새 한 마리 울어줄 지구도, 노루 새끼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다는 것은 지구로 나타나는 고국(조국)이 없다는 것으로 일제강점기 시대가 배경임을 알 수 있다.
- ② 제시된 부분의 시만 보고 짐작할 수 있는 시대 배경은 없고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라는 것만 드러난다.
- ③ 영화가 시작하기 전 애국가를 경청하는 것으로 보아 1980년대가 배경임을 알 수 있다.
- ④ 패망한 나라, 왕조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6. 정답 ②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은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 문학의 특수성은 한국 역사나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연결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 내용은 한국의 역사적 상황, 제도, 가치관, 독특한 정감 등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양상에 대해 언급한 ②는 어느 나라의 문학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편성이 가깝다.

①, ③, ④, ⑤ 한국 문학의 특수성에 해당한다.

7. [정답] ①

이 작품은 1인칭 ‘나’의 시점에서 서술되어 있다. 작품 속의 모든 사건들은 소년의 시선에 포착된 것으로, 이로 인해 중심 사건인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을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②,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아니다.

④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⑤ 자신이 겪은 사건과 사건을 통해 느낀 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8. [정답] ③

이 소설에 반영된 사건이 6·25전쟁임을 고려했을 때, 전쟁이 가져온 한 가족의 불행이 제목의 의미로 적절하다.

① 제목의 의미를 기상 현상으로만 보는 것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② 개인의 우울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④ 장마는 언젠가 끝이 나기 때문에, 이념의 대립도 언젠가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⑤ 전쟁의 상처를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상처 극복의 과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9. [정답] ④

①은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작품 전체를 이끌어 가는 배경과 관계가 깊으며, 불신과 갈등의 역사인 6·25전쟁의 종결을 상징한다. 이러한 결말 처리는 작품에 여운을 주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싹트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 마지막 부분이 한 줄 떨어져 있어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갈등 상황을 나타내는 ‘장마’가 드디어 끝났다고 표현하여 작품의 제목과 연결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전쟁으로 인한 가족들끼리의 갈등이 장마 기간 동안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⑤ ‘정말 지루한’이라는 수식어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가족들끼리의 갈등이 길게 느껴지고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10. [정답] ③

‘두 분 사이에 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내가 낯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였다.’에서 외할머니가 마루에서 소리치던 날 이전에도 두 할머니의 사이가 냉랭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곁에 두 드리진 변화는 없었다.’를 통해 외삼촌이 입대하기 전까지도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사이가 좋았음을 알 수 있다.

② 할머니의 ‘인명은 재천이랬다고~’ 부분에서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다는 운명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외할머니가 빨갱이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이에 대해 빨치산인 삼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의 할머니가 분노하면서 둘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⑤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갈등 관계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념 대립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11. [정답] ①

이 소설은 나이 어린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비극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성인이 된 ‘나’의 시각은 사물 어휘라든지 상황 판단 능력 등을 통해 드러나며, 이는 나이 어린 서술자의 시선을 보완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③ 아이의 순수한 시각을 통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선입견과 편견 없이 이념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④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워 이념의 대립과 전쟁의 희생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⑤ 이 작품의 시점은 어린 소년의 눈에 맞춰진 것이지만, 이 소년의 시선은 어른이 된 서술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건과 서술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며 독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접하고 해석하게 된다.

12. 정답 ⑤

제목 ‘장마’는 이념 대립이 몰고 온, 가족의 불행을 의미한다. 윗글은 개인의 불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① 이 소설은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에서 알 수 있듯이 매일 비가 내리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작품 전체에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효과를 갖는다.

②, ④ 이 소설의 제목인 장마는 한국 전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한 대립이 가져온 고통을 의미한다.

③ 장마처럼 언젠가 전쟁의 아픔도 치유되고 이념의 대립도 끝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13. 정답 ②

‘저놈의 예펜네 말허는 것 좀 보소이. 참말로 죽을라고 환장했능개비. 내 아덜이 왜 어디가 어찌간디그려?’, ‘저 죽은 댐이 지사 지내 줄 놈 한나 없응게 남덜도 모다 그런 종 아는가 분디…….’ 등 인물들이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어 토속적 성격과 리얼리즘을 강화하고 있다.

① 분단 상황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③ 이 소설은 어린아이인 서술자와 어른이 된 서술자가 입체적으로 나타난다. 과거를 회상하며 어른의 시각에서 당시 어른들의 갈등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성장 소설로 볼 수 있으나, 서술자의 성장과 그 의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인물들의 심리와 생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⑤ 이 소설의 배경은 6·25전쟁 중의 한 농촌으로, 도시로 이주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